

발전을 거듭하는 中國의 방위산업

2차 대전후 여러해 동안 중국의 방위산업은 소련이 제공한 군사장비를 그대로 복사하여 제조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었다.

하지만 '50년대말과 '60년대초에 걸쳐 中·蘇 관계가 악화됨으로써 그 이상 현대적인 소련제 장비는 제공되지 않았다. 여기에는 115밀리포를 장착한 T-62 주전차, ZSU-23-4 23밀리 자주대공포, 항공기, 헬기등 1960년대에 제작된 신형 소련제 무기체계등이 포함되어 있다.

일찌기 중국은 소련에서 설계한 장비를 약간 개량하여 생산하기 시작했고, 이중 얼마는 서방제조업체들이 경쟁할수 없는 가격으로 우방국들에게 수출하였다.

이어서 중국은 더 많은 최신 소련제 장비를 복제하는데 성공하였으며, 국내 및 수출시장을 목표로 생산하였다.

좋은 예가 WZ 501 보병전투차량으로, 이는 소련이 1960년대에 처음으로 배치한 소련제 BMP-1을 거의 그대로 복제한 것이다. 중국은 이집트에서 BMP-1을 구입한후 중국군에 맞도록 이를 역설계한 것이다.

중국이 수년간 독자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분야는 수륙양용 輕장갑차량의 설계·개발 및 생산이다.

YW 531형 시리즈는 1960년대에 설계되었고 이후 많은 나라로 수출되었다. 이것은 베트남전에서 사용되었고, 최근에는 전차, 화포와 함께 이라크로 많은 양이 수출되었다.

YW 531형은 여러가지 차종으로 제작되었는데, 지휘소차량, 엠블런스, 122밀리 자주곡사포, 로켓발사대, 對전차 차량 및 박격포 운반차량 2종(82밀리 및 120밀리)등이 이에 포함된다.

현재 생산되는 모델은 중국의 환경에 아주

적합한 중국제 KHD 공냉식 디젤엔진을 사용하고 있다.

YW 531형을 교체하기 위해 내놓은 것이 새로운 85형 계열(531 H형이라고도 함)로 여기에도 다양한 차종이 있다. 이 중에는 73밀리포, 7.62밀리 同軸기관총 및 소련제 「Sagger」 대전차 유도탄의 중국형등이 장착된 WZ 501 보병전투차량의 포탑을 갖춘 것도 있다.

최소한 WZ 551과 WZ 523의 2 종류를 포함한 장륜차량도 개발되었다. 비록 WZ 551은 중국에서 시험된바 있는 프랑스제 VAB(6×6) 계열의 차량과 흡사하지만 면밀히 살펴보면 큰 차이를 발견할수 있다.

다른 중국제 장갑전투차량과 마찬가지로, 4×4 및 8×8형외에도 다양한 차종이 동일한 기본차체를 활용하여 제작되었다. 8×8형중 하나인 122밀리 자주곡사포는 중국 포병부대의 전략적인 기동력을 증대시켰다.

소련은 당시 중·소 관계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었으므로 최신의 자주포 체계는 제공하지 않았다. 따라서 중국은 자주포분야의 긴급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531형(YW 531) APC의 차체를 개조하여, 2차대전 이전의 소련제 M 1938(M-30)을 복제한 형인 122밀리 54-1형의 견인곡사포를 장착할수 있도록 만들었다. 54-1형의 최대 사거리는 1만1천8백미터로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단거리지만 중국 포병부대에는 어느 정도의 기동성을 제공하였다.

이후 중국은 최대사거리 1만7천2백30미터로서 고퍽탄을 발사할수 있는 83형 152밀리 자주곡사포를 개발하였다.

자주대공포의 부족은 변형한 전차 차체에 57밀리 80형 쌍열포와 이후 37밀리 쌍열포체제를

개발하여 장착함으로써 해결하였다.

중국은 또 기계화부대를 지원하기 위해 주전차를 특수한 형태로 개발하였는데, 이 중에는 16미터의 간격을 연결할 수 있도록 2개의 다리가 부착된 84형 AVLB(Armoured Vehicle Launched Bridge)과 653형 장갑구난차량등이 있다.

수출 실적이 있는 59형과 69형 주전차는 더욱 개발하여 최근 80형을 제작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구형 전차에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이를 현재 서방측의 Leopard 2, M1A1이나 Challenger 등과 같은 120mm 주전차와 견줄 수 있을 정도로 볼 수는 없다.

중국은 이미 ADFSDS탄과 반연소탄피의 생산에 상당한 능력을 보여주었다. 미확인 소식통에 따르면 이스라엘은 전차포, 탄약 및 사통 장치분야에서 중국에 상당한 지원을 하였다.

중국은 또한 미국의 FMC사나 영국의 Vickers Defence Systems사와 같은 서방제조업체들과 협력협정을 체결하였다.

FMC사와 협력한 결과로 나온 것이 NFV-1 보병전투차량으로 WZ 501 보병전투차량 차체에 FMC의 1인용 전동장치와 McDonnell Douglas Helicopters의 25mm 기관포 및 7.62mm 기관총을 장착한 것이다.

Red Arrow-73 대전차 미사일과
73mm 기관포를 장착한
YW-501 장갑전투차량



NFV-1은 1986년말에 첫선을 보였고 이집트에서 시범을 보인 적은 있지만 아직 판매가 되지 않았다.

NVH-1 MICV는 NORINCO(China North Industries Corp)와 Vickers Defence Systems사 합작으로 1986년말에 공개되었다. 이것은 Avimo NVL 53 조준경과 McDonnell Douglas Helicopters의 25mm 기관포, 7.62mm 기관총을 장착한 2인용 포탑을 갖추고 있다.

최근에는 중국의 CMEC(China National Machinery & Equipment Import and Export Corp)와 미국의 Cadillac Gage Textron사가 수출시장을 겨냥하여 새로운 주전차를 설계중이라고 발표하였으며, 이것이 생산된다면 서방측의 유사한 주전차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인 백만불정도에 판매될 것이다.

이 신형 주전차인 「Jaguar」는 성능이 입증된 영국의 엔진과 전동장치 및 NATO 105mm포를 사용함으로써 실제 세계 전역에서 탄약공급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협력사업에도 불구하고 몇몇 서방국가들은 중국에서 시범을 보이거나 현지 면허 생산을 제공할 장비의 선정에 대단히 조심하고 있다. 그동안 서방 제조업체들은 소량의 장비를 중국에 판매한 경우가 많은데 중국은 이를 2~3년만에 역설계하였던 것이다.

다른 제조업체들도 중국에 시범용으로 보낸 장비에 손을 댄 흔적이 있었다고 보고한바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초반이후 중국은 서방 제조업체와 협력을 하면서 주요 부문에서 급속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몇몇 분야에서는 중국의 장비가 미국의 장비에 비해 손색이 없다. 하지만 중국이 자체적인 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서방의 기술 지원과 기술이전이 필요하다.*

〈Jane's Defence Weekly 1988. 11. 19〉